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 016

HAN SAE

SPRING
IN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16 SPRING



COVER STORY



마음마저 움츠리게 한 겨울이 지나니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얼마 만에 느끼는 따스함인지, 참 반갑다. 누군가와 함께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 사이를 걸어가고 싶은 날이다.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한 봄, 나의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봄이 주는 감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SPECIAL THEME

WE ARE ONE

테마 이슈
다른 듯 같은 우리가 이룬 하모니 04

회사소개서
리바이스 키즈(Levi's Kids) 08

앙케트
연극으로 이룬 Fun한 소통 10

사라인
에프알제이의 특별한 나들이 12

스포트라이트
제 4회 모이물론 가드닝 클래스 현장 14

내가 패션왕
한세 대표 패션니스타 6인을 소개합니다 18

나도 한마디
HANSAE DJ, 이 노래를 틀어줘요 22

문화다방
봄바람 솔솔 불어오는 "문화다방" 24

HEADLINE NEWS
한세 봄호 단신 모음 26

확성기
밴드 동호회 G24 2018년 신입 회원 모집 30

We are One



팀으로 일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앞으로 밀어내고
경계를 넘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패션디자이너)

While working as a team,
you push yourself forward
and move outside the boundaries.
It's a great thing

혼자 밥을 먹은 뒤 혼자 영화를 본다. 어느 날은 혼자 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한다. 더 이상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가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생각날 때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보기도 한다. 점과 점이 선을 이루고, 그 선이 결국에는 하나의 면을 만들 듯, 사람도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세계는 '당신과 나'라는 관계들이 모일수록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바로 '함께'이다.



다른 듯 같은 우리가 이룬 하모니

We
are
One



이리저리 뻗어 나간 나뭇가지이지
만, 이를 이어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했다. 나뭇가지는 각각 다른 햇
살과 비, 바람을 맞아 다른 모습으
로 성장했지만 결국 그들의 시작은
같다. '한세'라는 나무에서 자란 각
계열사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
선을 다하는 7명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반갑습니다! 회계팀 여러분!

옷매무새를 절로 여미게 됐던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훈훈한 봄 냄새가 가득했던 지난 3월의 어느 날. 한세실업 류성진
주임, 동아출판 차기정 차장, 한세엠케이 유나라 주임, 예스24 김동인 파트장, 한세드림 이주현 차장과 전선희 대리,
에프알제이 이주희 주임이 한세예스24홀딩스&예스24 지하라운지로 들어섰다. 이들 가운데 구면인 사이도, 처음 만난
사이도 있기에 연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오갔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공
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매개체로 이들을 묶을 수 있다. 바로 '회계 업무'라는 큰 틀로 말이다.

각 계열사의 회계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표해 자리를 채워준 7명.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회계 용어와 많은 숫자로 가
득한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모두 비슷하게 회계, 총무 등 경영 지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테지만,
실제 업무는 계열사마다 다를 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일과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
며 서로가 느꼈을 고충에 공감하고 위로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서류와 모니터를 보는 눈부터 어깨, 팔, 다리가 빠근하시지요? 업무 중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간
단하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쭉 뻗기도 하고, 목을 이리저리 돌리면 훨씬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또 집중력도 올
라가서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동아출판 차기정 차장이 건네는 '시원한 스트레칭 꿀팁'에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는 회계팀 직원들. 뭉친 어깨가 조금씩
풀려가듯, 다소 어색했던 이들의 사이도 서서히 좁혀지는 듯했다.

진짜 '가족'이 될 우리

사실 이들은 공통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다. 타 계열사의 의견을 묻거
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종종 온라인으로 소통을 이뤘다고. 이외에도 지난 에프알제이에서 진행한 패밀리세일처럼 타
계열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이들은 '한세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
도로 만족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전 계열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 등 교류가 자주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외쳤다.

서로 계열사 자체가 다르고 업무 공간도 달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는 이들이라 이번 만남은 더 특별하다. 한세엠케이에 입사한 지 3년 차가 된 유나라 주임은 “한세엠케이는 한세와 한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리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동질감도 들고요”라며 각별한 의미를 전했다.

지난해 11월, 7월에 각각 입사해 신입사원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에프알제이 경영지원팀 이주희 주임과 한세실업 회계팀 류성진 주임도 “이 시간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진짜 ‘한 가족’으로 똘똘 뭉쳤으면 합니다”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각자가 아닌 '하나'로

새내기다운 당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주희 주임과 류성진 주임을 본 한세드림 이주현 차장은 선배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를 건넸다.

“회계팀의 특성상, 항상 최신 법령, 기준, 규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식들을 참고합니다. 또 경쟁사나 업계 뉴스도 꼭 챙겨 읽지요. 별 것 아니지만, 이주희 주임과 류성진 주임에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 한세드림 전선희 대리도 “타 계열사 직원분께 협조, 도움을 구할 때는 각 회사의 문화와 특성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회사와 상대방의 계열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라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응원도 잊지 않고 건넸다.

각자 맡은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료들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 각자 가진 능력과 기량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이들이 만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발휘될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이 이룬 성취가 하나씩 모여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각자가 아닌 '하나'가 될 그날을 함께 기도해본다.



HANSAE
fashion worldwide

HANSAE MK

한세실업 회계팀 류성진 주임

오늘처럼 각 계열사 회계팀원만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남다른 유대감이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지’라는 느낌보다 ‘진짜 한 가족이지’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한세엠케이 회계팀 유나라 주임

회계 업무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기 때문에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보 촬영 전에는 어색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좀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길 바라며, All is Well!

한세드림 회계팀 전선희 대리 & 이주현 차장

가끔 백화점이나 서점을 가면 한세 계열사의 브랜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눈길이 가지요. 이럴 때 ‘어쩔 수 없는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회계팀은 업무가 한 번에 집중되는 시기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한세드림(주)

Go Beyond Education
동아출판

FRJ Jeans

동아출판 경영지원팀 차기정 차장

오늘을 계기로 가볍게 커피를 마시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종종 보냈습니다!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에프알제이 경영지원팀 이주희 주임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온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계열사 식구들과 만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꽃 구경도 하고 좋은 경지도 보면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24 회계팀 김동인 파트장

이렇게 모일 기회는 흔치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열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올해도 서로 도와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YES 24.COM

우리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데님 패션'은 이곳에서! 리바이스 키즈(Levi's Kids)

아메리칸 오리지널 진캐주얼 아동 브랜드 '리바이스 키즈'가 한국에 상륙했다. 그리고 한세드림은 리바이스 키즈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한세드림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리바이스 키즈에 대해 낱알이 알아보자.



Profile

신상정보

데님 오리지널 브랜드 '리바이스(Levi's)' 키즈 라인
한국 단독 수입 유통 파트너로 한세드림 선정



Career Timeline

리바이스 키즈의 발자취

- 2002 태승 어패럴에 의해 국내 도입 시작
- 2005 MU S&C(해피랜드 F&C 자회사)를 통해 라이선스로 전개
- 2018. 11 한세드림 단독 수입 유통권 확대

Why HANSAEDREAMS?

한세드림을 선택한 이유

국내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다, 정책 변경과 직수입 전환을 앞두고 유통 협력사 필요성 대두
한세드림 '플레이키즈 프로(나이키 사 키즈 브랜드)'의 국내 성공 사례를 높게 평가해 한세드림을 파트너로 선정



Style

추구하는 패션

데님에서만 볼 수 있는 견고함과 클래식함 +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소재
4세부터 16세까지 폭넓은 연령대 대상



Products

주력 제품군

- 하의 청바지, 치노팬츠 레깅스, 추리닝 바지 등
- 상의 데님셔츠, 후드티, 캐주얼셔츠 등
- 아우터 데님자켓, 부머, 윈드브레이커 등
- 상품별 가격대 25,000~79,000원

What's your Future Plan?

앞으로의 계획

올 한 해 동안 총 20개 점 리바이스 키즈 단독 매장 오픈 예정(내년 S/S 시즌 10개 점+F/W 시즌 추가 10개 점)→2019년 단독 매장 30개 점 확대 예정 / 기존 한세드림 브랜드들과 시너지 효과 위해 자사 플레이키즈 프로 매장에 흡인흡으로 입점 예정



The Last Word

한세드림&리바이스 키즈가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의미 있는 기회”

이번 리바이스 키즈 유통권 확보는 한세드림에서 약 3년간 진행한 플레이키즈 프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신뢰 및 기대감으로 체결된 계약

“진일보한 글로벌 키즈 브랜드”

고객들에게 리바이스 키즈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키즈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극으로 이룬 Fun한 소통

“네? 즉흥연극이요?” 대본 없이 주어진 상황을 상상력을 발휘해 시현하는 즉흥연극. ‘베테랑 배우들도 어렵다고 꺼리는 그것을 우리가 한다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정말 질색인데’ 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의 눈에도 불안감이 가득한 것을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직 연극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힌 시간

남영동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 이곳에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동료들이 모였다. 우리뿐 아니라 회장님과 대표님도 함께이다. 그래서인지 더 잘 해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맴돈다. ‘아자 아자!’를 외치면서 프로페셔널한 진행자 세 명이 이끄는 대로 조심스레 게임에 임했다. ‘어라,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나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신선한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경직되어 있던 머릿속과 몸이 조금씩 긴장이 풀려 한결 편안해졌다. 이윽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는, 이른바 ‘즉흥연극’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부끄러워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숨겨 왔던 재능을 뽐내기 시작했다. ‘와우! 우리 회사에 순발력이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감탄과 함께 앞다퉈 발산하는 상상력과 재치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나를 내려놓고 웃고 떠들며 즐기다 보니 예정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짧은 시간에 담은 소통의 의미

오랜만에 유쾌한 시간을 보낸 우리는 스튜디오 근처 호프집에 모여 아쉬움을 달렸다. 즉흥연극을 시작하기 전 부담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동료들의 얼굴은 색다른 경험과 나름의 만족감으로 한결 편안한 웃음을 담고 있었다. 이를 보는 나도 덩달아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졌다. 다들 조용히 자리에 앉아 편집만 하는 모범생인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면을 보니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서로 소통하며 맘껏 웃은 오늘, 모두에게 힐링의 시간이 된 듯하다.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쌓고, 오랜 시간 지척에서 함께 일했음에도 몰랐던 동료들의 진가를 이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 참 감사하다. 역시 우리는 ‘최고’였다.



내 안의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조금 부끄럽지만 **색다른 경험**

이과생의 **상상력**, 문과생의 **재치**,
예체능생의 **유머**가 한가득

‘즉흥연극’,
동료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소통하며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체험한 시간

나를 내려놓고
서로의 벽을 허문 시간

조용히 혼자서 일하는 데 익숙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
한껏 위축되어 있던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했던 시간

나의 내면을 **몸짓**과 **대화**로
표현한 좋은 계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리프레시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고
나를 편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시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교육에
재미를 느끼고, **팀워크**도 돈독해진 시간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리액션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업**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



에프알제이의 특별한 나들이

어떤 관계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만 아는 시간이 쌓이기 마련이다. 하루 중 대부분을 함께 지내는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다. 에프알제이는 동고동락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업무뿐만 아니라 취미,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FRJ Jeans 마케팅 담당 허준 님이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에프알제이 사내 서포터즈 활동 2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열심히 활을 쏜 뒤 출간 포토 타임
2. 활 쏘기에 한창인 서포터즈 팀원
3. 서포터즈 팀원들이 국궁을 즐긴 난지 국궁장



1 2

뜨거운 열정을 향해 쏘라! 국궁

국궁은 우리나라 전통 활 기술로,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서포터즈 1팀은 여러 가지 활동 중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흥미로운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국궁'을 진행했습니다.

팀원들은 많은 국궁장 가운데 '난지 국궁장'을 선택했는데요. 상암동 FRJ 본사와 거리가 가까운 데다, 저렴한 합리적인 금액(20발 기준 5,000원)에 마음이 끌렸다 합니다. 여기서 꿀팁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운이 좋다면 동일한 금액에 1일 무한 체험도 가능하다는 것!

국궁은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하네요. 또 올림픽에서 보던 과녁처럼 멀리 있는 것은 맞추기 힘들었지만,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과녁은 생각보다 쉬웠다고 합니다. 서포터즈 팀원인 상무님부터 사원까지 모두 쉽고 편하게 즐겼대네요. 또 처음에는 귀찮음과 '재미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과열된 경쟁으로 모두가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체험을 열심히 즐긴 팀원들은 한세 가족들에게 국궁을 강력히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스포츠가 사라지는 것 같아,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저렴한 가격과 가격 대비 효능이 뛰어난 여가 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세 가족들이 한 번쯤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번 주말, 온화한 봄 햇살 맞으며 국궁 체험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 문화인! 연극을 보시다

2018년 시작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FRJ 서포터즈! 자유로운 주제로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특정 주제 1개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각 서포터즈는 돌아가며 1달에 1회 관람을 하고, 월례조회 때 후기를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관람'입니다.

서포터즈 3조 팀원이 선택한 관람은 대학로 연극 '룸넘버 13'으로,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총재의 비서 사이에서 벌어진 전대미문 여야화합 폭소 스캔들을 다룬 코미디 연극입니다. FRJ 생산팀 김목겸 차장님의 주도로 대학로에 도착한 팀원들! 연극 관람 전, 근처 파스타 집에서 함께 식사를 즐겼다고요. 무뚝뚝한 남자 서포터즈 인원들은 느끼한 까르보나라를 먹으며 김치를 매우 그리워했다네요. 하하.

식사를 마무리한 뒤, 드디어 시작된 연극! 고정된 세트에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인상적인 연극이었다는 데요. 특히 실제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생생한 육성과 표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연기가 관람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웃으며 재미있게 본 3조 팀원들은 연극이 끝난 뒤, 박수를 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냈다고 하네요.

사실 팀원들이 이 연극을 선택한 이유는 YES24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FRJ는 계열사들을 적극 활용해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RJ 전체 인원은 총 27명 정도인데 이번 연극을 보면서 전 직원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서포터즈의 메시지와 함께여서 배가 된 즐거움을 남기며 글을 마칩니다.

1. 멋진 연극을 보여준 배우들과 한 컷
2. 연극 <룸넘버 13> 포스터.
YES24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관람에 인증샷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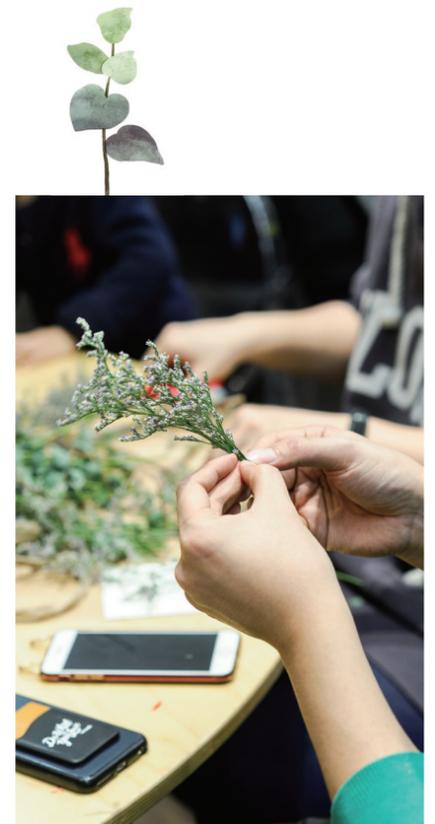
3



향긋한 ^남나, 우아한 ^남나

제 4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 현장

벚꽃축제는 언제 하는지, 어디로 가야 인생샷을 남길 수 있을지 찾아보며 봄을 오매불망 기다린 지 오래. 기승을 부렸던 꽃샘추위가 사라진 것을 보니, 정말 봄이 왔다 보다. 푸릇푸릇한 봄을 기다린 이들을 위해 지난 3월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가 개최됐다. 따뜻한 봄날과 어울렸던 그날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한남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4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가 열렸다. 깔끔하고 아늑한 실내에 놓여 있는 원형 테이블과 클래스 진행을 위한 재료들이 참여한 가족들을 맞이했다. 이번 클래스는 모이몰른 블로그(<http://hansaedreamblog.com>),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당첨된 총 30커플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만 아니라 부부의 사랑스러운 2세도 함께해줘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스'라는 의미를 더해주었다. 어느덧 네 번째 진행되는 클래스의 주제는 '모이몰른만의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가드닝 클래스'다. 매회 높은 관심을 보내주는 참여 인원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클래스에서 만들 작품은 행운과 환영의 의미를 담은 '리스'와 리카엔 라인의 엽서를 활용한 '플라워 엽서'다. 리스와 플라워 엽서는 요즘 유행하는 북유럽풍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참여 가족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함께여서 더 소중한 시간

간단한 식순 설명 뒤, 본격적으로 리스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여 가족 모두 같은 재료를 받았지만, 만드는 이에 따라 다르게 완성될 터. 이번 클래스에는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아졌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정하게 만들기에 몰입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앉아 엄마아빠의 모습에 집중했다. 만들다가 어려움을 느낀 부부는 스태프와 플라워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개성 넘치는 리스를 만들었다.

리스를 모두 만들고 난 후에는 플라워 엽서도 만들었다. 감각적인 패턴이 프린팅 되어 있는 리카엔 엽서 위에 꽃을 붙이면 완성! 부부가 정성스레 플라워 엽서를 만든 후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참여 부부는 "평소 육아와 일상에 쫓겨 물만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기회 덕분에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런 사소한 시간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번 클래스에서도 제3회 가드닝 클래스의 리마인드 웨딩 촬영에 이어 가족들을 위한 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각 가족은 직접 만든 리스와 플라워 엽서를 들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음으로써 프레임 안에 추억을 가득 담았다. 아울러 여름 신상 풀 착장부터 리카엔 가족 양말 세트까지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럭키드로우 행사도 진행됐다. 가드닝 클래스가 한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랐던 시간.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모이몰른만의 향긋한 클래스가 전하길 수 있기를 바란다.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 생생 후기

동아출판 전예슬 님

소중한 기회를 얻어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 모두 손재주가 없었는데, 스태프분들과 플로리스트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쁜 리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만든 리스는 안방 문 앞에 잘 걸어놨어요. 알찬 구성과 섬세한 핑거푸드까지 신경을 많이 쓴 행사라는 느낌을 받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세실업 노재민 님

오랜만에 아내와 아들이랑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드닝 클래스 규모가 커서 놀랐고, 탄탄한 구성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리스와 플라워 엽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클래스 진행 내내 입가에 미소를 짓더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또 참여하고 싶네요! 다음 모이몰른 가드닝 클래스도 기대하겠습니다.



매력이 뽐뽐!

한세 대표 패셔니스타 6인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직장인이자라면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오늘은 뭐 입지?"라고. 고민 끝에 옷을 골라도 매번 비슷한 느낌이다. 같은 색이라도 색다르게, 땀이 있게 입고 싶은 이들은 잠시 주목하시라. 한세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 6인만의 패션 꿀팁을 건넬 테니!

한세실업 R&D 디자인팀
안지원 주임



에프알제이 디자인실
구선정 매니징장



동아출판 초등스팀
이일명 과장



한세드림 모바일은 소싱팀
조철훈 주임



메스그4 도서팀
양찬 대리



한세엔지니어링 TBT디자인팀
김완 주임



패션이 봄을 만나 꽃을 피우다

자칭, 타칭 패셔니스타라면 봄이 반가울 것이다. 두꺼운 외투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센스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내가 패션왕>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동료, 선배 직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패션왕에 등극했다. 한두 가지 포인트 아이템을 매치해 패션 센스를 돋보인 것이 역시 '한세의 패션왕'이다. 곧이어 시작된 촬영은 '패션 화보'를 콘셉트로 진행됐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여유롭게 자세를 취하는 이들. 이로써 나만의 화보 완성이다.

에프알제이 디자인실 구성정 데님팀장

개인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곤 적이 없었는데, 패션왕으로 추천받아서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하하. 진짜 패션왕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잘 입으려면, 내 체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장점은 부각하면서 단점은 가릴 수 있지요. 그동안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올해는 '유스컬처봄'이 불면서 보이쉬하고 세련된 룩에 눈길이 가요. 꼭 시도해 보고 싶은 스타일이죠. 이를 위해서는 데님만 한 아이템이 없을 것 같아요. 봄도 되었으니, 맑고 화사한 룩을 위해 예쁜 청바지를 하나 더 장만해야겠어요.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은 날엔 별 이유가 없어도 기분이 좋아요. 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보는 나의 모습도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패션을 '요술 마토'라고 생각해요. 이미지, 환경 심지어 기분도 좌우할 정도로, 사람을 번신시켜주니까요! 모두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요술 마토를 입고 매력을 뽐내보세요!

한세실업 R&D디자인1팀 안지원 주임

평소 롱스커트와 스니커즈를 매치해, 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즐겨 입어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꼭 착용하는데, 가끔은 과감한 프린트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시도하는 날이 오겠죠? 저에게 패션은 제가 바라는 모습이나 성격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도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옷 고르는 일이 어렵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신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 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나를 잘 알아야만 이를 옷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을 맞이해, R&D디자인팀에서 'SMART SPORTWEAR' 콘셉트로 평상복과 운동복의 경계를 흐리는 스마트하고 포멀한 운동복을 선보였습니다. 운동복도 이제는 패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업무할 때도, 운동할 때도 나만의 개성을 담은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한세엠케이 TBJ디자인팀 김완 주임

평소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룩북이나 컬렉션을 참고해서 연출하는 편입니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파격적이지만 세련된 락시크 스타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스타일을 추구했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크롭 기장의 데님에 스니커즈 혹은 로퍼를 매치하면 봄과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봄이 무척 짧아서, 여름에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레트로 느낌이 담긴 빈티지 티셔츠'는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옷' 만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인데, 글이 아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나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참고해서 '패션왕'으로 추천한 것이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룩으로 보답해야겠습니다.

예스24 도서1팀 양찬 대리

제가 첫 <내가 패션왕> 칼럼의 주인공으로 추천받다니! 어리둥절하네요. 그래도 '왕'이니까 그저 기쁘네요. 저는 평소에 빈티지한 느낌의 옷을 즐겨 입어요. 사진 촬영 때 입은 옷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실루엣이 박시한 옷도 좋아해요. 새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그런지, 대부분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어요. 가끔은 정돈된 느낌의 정장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지만요. 하하. 이제 봄이 왔으니, 겨울 동안 넣어뒀던 '선글라스'를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단순한 아이템이지만 선글라스 하나만 착용해도 패셔니스타 느낌이 물씬 난답니다. 그리고 책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책 한 권 들고, 사진을 찍어 보세요. 인생샷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하지요. 이 가운데 '의'가 있으니, 옷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죠. 나만의 패션을 고민하고 정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동아출판 초등2팀 이일영 과장

저 말고도 정말 모델처럼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패션왕 자리에 서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대신 나온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관리하기 쉬운가'입니다. 관리하기 어렵거나 장식이 화려한 옷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포플린 셔츠나 니트류를 선호하지요. 사실 제게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출근룩은 대부분 아내의 손을 거친답니다. 그리고 패션에서 'TPO'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패션 공식과 제 취향을 잘 아는 아내의 감각이 합쳐진 옷을 입을 때 진정한 '패션왕'이 된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딸과 함께 멋진 패밀리룩을 맞춰 입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의 패션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아내도 함께이고요. 그렇게 찍을 날이 벌써 기대돼네요.

한세드림 모이몰른소싱팀 조철훈 주임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패션왕으로 추천을 받으니 부끄러운걸요? 저의 개성이 담긴 스타일이 동료들에게 '옷 잘 입는데?' 라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슈트를 자주 입어요. 또 워트 있는 스타일도 매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빈티지하거나 캐주얼한 옷도 즐겨 입지요. 요즘같이 따뜻한 봄이 되면, 같은 옷이지만 다른 옷을 입은 듯한 효과를 주는 '스카프'가 제 Must Have Item이에요. 대부분 스카프를 여성만을 위한 아이템으로 생각하는데, 작은 스카프를 활용하면 멋지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마치 '나는 섬세한 남자야'라는 느낌이 풍기죠.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좋은 아이템이라도 과하면 그날의 워스트드레서가 될지 모르답니다. 올봄에 모이몰른에서 추천하는 톤온톤 매치법으로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즐거운 봄나들이를 가는 것은 어떨신가요? 여러분 모두 봄과 어울리는 상큼한 스타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데님
세련된 스타일이
가능해요
-
구성정
데님팀장

패션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
-
안지원 주임

이미지로 보는 자기소개서
-
김완 주임

책도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
양찬 대리

아내의 사랑이 담긴
나의 패션
-
이일영 과장

패션은 곧 절제다
-
조철훈 주임



로이킴
봄봄봄

제목에 봄이 세 번이나 들어가잖아요!
따뜻한 봄 날씨와 로이킴의
달달한 목소리가 잘 어울려요!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봄=벚꽃' 아닌가요?

IKON
사랑을 했다(Love Senario)

봄과 연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보긴 했으니까... 하고 싶네요.
(제발 흑흑)

아이유, HIGH4
봄 사랑 벚꽃 말고

봄바람 부는 날, 아이유 같은 아내와
영화를 보고 싶네요. '이런, 이런, 쫓쫓'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아요.
(전 솔로가 아니니까요)

폴킴
비

요즘처럼 봄비가 내릴 때 들으면
딱 좋은 노래!

최재훈
비의 랩소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봄비가 기다려집니다.

HANSAE DJ, 이 노래를 들어줘요

봄이 되면 반드시 듣는 노래가 있나요? 한세인들이 봄
이면 어김없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노래와 그 이
유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봄과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활기찬 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16
all about you

대학생 때 만난 첫사랑과 봄 캠퍼스에서
들었던 노래입니다. 꽃내음 가득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기 정말 좋아요.

케이윌
Love Blossom

선선한 봄 날씨, 해가 질 듯 말 듯 한
어스름한 저녁에 케이윌의 목소리를 들으면
없던 설렘도 생겨요.

Inger Marie Gundersen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봄비가 내릴 때 창밖을 보며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추천한 지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어쿠스틱 콜라보
그대와 나, 설렘(Feat. 소울맨)

작년 이맘때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팀원들과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때처럼 다시 팀원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클래지콰이
러브레시피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입니다.
달달한 가사와 목소리 때문인지,
요새 계속 흥얼거리고 있네요.

10cm
봄이 좋냐??

네! 전 봄이 정말 좋아요!

황치열&백아연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이 노래를 들었을 당시, 햇살과 바람 그리고
함께한 사람의 조화가 참 완벽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지요.
황치열, 백아연 버전도
추천합니다!

Paramore
Ain't It Fun

낭만적이진 않지만, 많은 일과 걱정을 잊고
나를 춤추게 하는 노래입니다.
멜로디에 근심 걱정을 실어
날려버리세요.

강수지
보라빛 향기

왜 봄이 올 때마다 강수지님의
옛날 영상이 떠오르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풋풋한 강수지님은
영원한 제 워너비이십니다.

MD가 추천하는
봄에 읽기 좋은 책



연나래 MD의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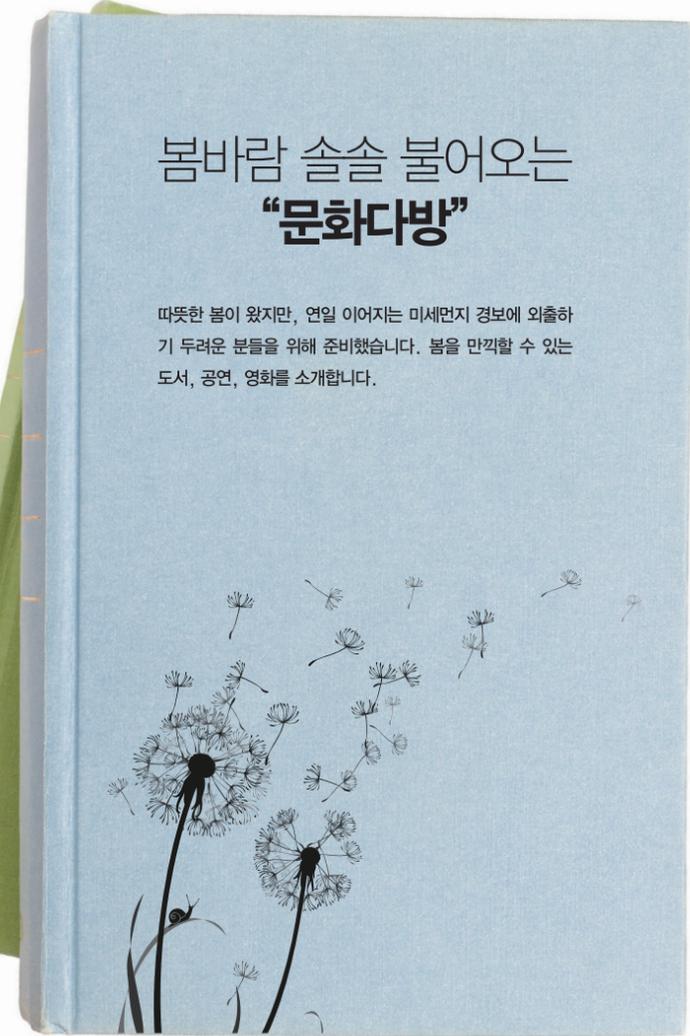
#정원생활자의 열두 달

#저자_오경아 #취미

“한 번쯤은 꿈꿨을 나만의 정원 생활! 그런 이들을 위해 가든 디자이너가 그림을 활용해 가드닝 수업을 진행합니다.”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사라질 것 같은 세계의 말
#저자_요시오카 노보루 #에세이
“사라져 가는 소수 언어의 단어 50가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마음에 고이 담아 두고픈 아름답고 다정한 말을 느껴보세요.”

김유리 MD의 추천 도서
#단 하나의 눈송이 #저자_사이토 마리코 #시
“봄이면 역시 시집이죠. 마음을 특출 건드리고, 큰 울림을 주는 언어를 정갈하게 담은 시를 추천합니다. 하얀 표지도 감각적이예요.”



따뜻한 봄이 왔지만,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경보에 외출하기 두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도서, 공연, 영화를 소개합니다.



박형욱 MD의 추천 도서

#빈방의 빛

#저자_마크 스트랜드

#예술

“시인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어떻게 볼까요? 그의 글이 온화한 봄날에 차분히 감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김수연 MD의 추천 도서
#리틀포레스트 1~2권 세트
#저자_이가라시 다이스케 #만화
“진짜로 산골 마을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더불어 힐링까지 맛볼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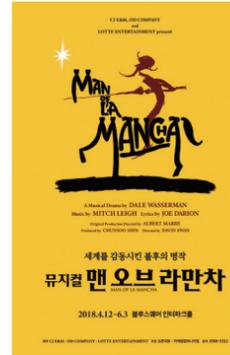
박숙경 MD의 추천 도서
#하루하루 교토 #저자_주아현 #여행
“필름 카메라 특유의 감성으로 천천히, 산책하듯 교토를 여행해봅시다.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분기에는 어떤 공연, 영화가?

공연



콘서트
〈MBC WATERBOMB 2018〉
2018.07.21
장소 추후공개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2018.04.12~06.03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뮤지컬
〈삼총사 10주년 기념공연〉
2018.03.16~05.27
한전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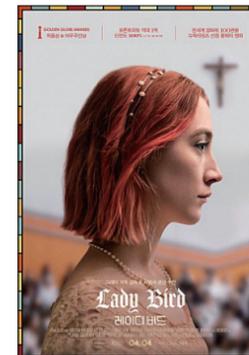


뮤지컬
〈닥터지바고〉
2018.02.27~05.07
사롯데씨어터



콘서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8〉
2018.05.12~05.13
올림픽공원 내

영화



영화
〈레이디 버드〉
2018.04.04 개봉



영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2018.04.25 개봉



영화
〈챔피언〉
2018.05 개봉 예정



영화
〈데드풀 2〉
2018.05 개봉 예정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2018.06.06 개봉

채널에스 추천 영화

사는 동안 무지개를 몇 번 볼 수 있을까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홈리스 생활하는 여섯 살 '무니'다. 귀엽고도 당돌한 이 아이를 따라 웃다가도 슬픔을 참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면 서늘해진다. 무니는 용돈이 없고 집이 없고 아버지가 없지만 친구와 호기심, 엄마가 있다. 아, 어른스러움도 있다. 무니가 머무는 모텔의 이름은 무려 마법의 성, '매직 캐슬'이다. 파스텔 톤의 모델엔 온갖 시연을 품은 장기 투숙자들이 머물다 떠난다. 돌보는 사람 없는 무니와 친구들에게 이 모텔은 놀이동산이고 삶에 대한 불가해한 체험장이다. 무니는 친구 젠시와 쓰러진 큰 고목에 걸터앉아 놀며 말한다. “내가 왜 이 나무를 좋아하느니 알아. 쓰러졌는데 계속 자라서.” 순진무구한 듯하다가도 현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무니였기에, 쓰러진 고목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한 것인지도 모른다든 생각이 들었다. 짠했다. 고목 위의 두 아이는 그토록 사랑스러운데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당을 간 무니는 “포크를 사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 먹고 포크도 먹으면 되

잖아”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다. 고목 위의 무니와 식당 안의 무니가 느끼는 세상의 무늬는 이토록 다르게 선명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씩씩하던 무니가 울어버린 순간이 있다. 엄마의 불행 매춘이 들롱나 정부 아동국에서 나온 이들이 무니를 입양 가정으로 데려가려던 때다. 무니는 이를 피하기 위해 젠시에게 도망쳤고, 하염없이 울어버린다. 젠시는 울고 있는 낯선 무니를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무니의 손을 잡고 디즈니월드 쪽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살면서 무니는 몇 번이나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 모텔 뒤로 가로지르며 빛나던 무지개를 잊지 못하겠지. 또 무지개 끝엔 황금이 있다고 믿었던 순간도. 나는 사는 동안 무지개를 몇 번 볼 수 있을까.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영화를 보고 나서 더 생각. “무지개를 찾아 나서고 싶다.”

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출처 채널에스 칼럼(<http://ch.yes24.com/Article/View/35460>)



동아출판, '하루 15분' 스토리북과 탭으로 만나는 킨더동아 English 출시

동아출판은 스토리로 배우는 우리 아이 첫 영어 프로그램 '킨더동아 English'를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4~7세 유아용 영어 프로그램으로 누리과정 을 주제로 만들었고, 양장 스토리북 전집 세트와 예스24 크레마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레마 탭에는 킨더동아 English 콘텐츠와 예스24에서 제공하는 1,500여 권의 무료 e-book 한글 동화가 담겨 있다.



지금은 코딩 필수 시대! '진짜! 코딩 교과서' 출간

동아출판은 2018년 중학교, 2019년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됨 에 따라 초·중등 학생 대상 '진짜! 코딩 교과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정보 교과서 집 필진이 타 교과목과 연계되는 통합주제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 디ング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난 3월 출간된 기초편에 이어 5월에는 실전 편, 7월에는 심화편이 출간될 예정이다.



'책 보내기 캠페인' 1주년 맞아

2017년 3월부터 연중 기획으로 진행한 '책 보내기 캠페인'이 어느덧 1주년을 맞 이했다. 4차례에 걸쳐 58만 2,000여 명의 회원이 약 7천만 회 이상 참여했으며, 368개의 학교에 약 1만 9,000여 권의 도서가 기증됐다. 또한 총 기부자 99명이 약 1억 6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록된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통해 초·중·고교 학 생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예스24 뮤지컬 굿즈 인기몰이

예매처 최초로 뮤지컬 굿즈를 제작해 뮤지컬 마니아, 이른바 '뮤덕'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같은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하는 '회전문 관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예스24를 통해 예매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199%, <타이타닉>은 97%나 티켓 판매량이 증가했다. 예스24는 높은 관심에 힘 입어 다양한 굿즈 제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능 만점자가 강력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강사 집필! '코드엠 절대등급' 출간

고등 수학 내신 1등급 문제서 '코드엠 절대등급'은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대표 강사 로 활동하는 이창무 강사가 집필했다. 전국 500개의 학교 시험을 완벽 분석하고 출제율이 높은 고득점 문제를 엄선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시 고득점 문제가 술술 풀리는 슬림 티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스24 X 디즈니 스페셜 굿즈 제작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예스24가 디즈니 캐릭터를 활 용한 굿즈를 선보였다. 미키마우스,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등 대표 디즈니 캐릭터 가 담긴 북커버, 파우치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 도서 구매자들에게 증정하는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세드림, '리바이스 키즈' 국내 단독 유통권 확보 후 '1호' 매장 오픈

지난해 한세드림은 '리바이스 키즈' 국내 1호 매장을 오픈했다. 신세계 백화점 의정 부 점에 위치한 1호 매장은 기존 SI(Store Identity)를 신규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하고 오리지널 리바이스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데님존을 별도 구분했다. 또한 다양 한 액세서리도 만날 수 있어, 구성이 한층 풍성해졌다. 월평균 매출 6,000만 원을 목표로 추후 국내 곳곳에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컬리수, 플레이키즈프로 서포터즈 발대식 성료

지난 2월 한세드림 본사 라운지에서 컬리수 서포터즈 '컬리수엔느' 6기와 플레이키 즈프로 서포터즈 '루키' 4기 발대식이 각각 진행됐다. 발대식은 각 사업부장 및 팀 장 환영사, 브랜드 신상품 콘셉트 등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서포터 즈는 지난 기수 대비 3배 이상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포터즈들은 3월부터 5월까지 18 S/S 시즌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모이몰론 2018 F/W 중국 수주회 성황리 개최

모이몰론 2018 F/W 수주회가 중국 상하이 노블센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수주회는 전년 대비 약 60% 늘어난 대리상 160여 명이 참석해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할 수 있었다. 디자이너가 직접 신제품의 기획의도, 콘셉트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 대리상들은 현지 스타일로 제작된 오리털 패딩과 두꺼운 면 바지에 주목했다. 수주회가 마무리된 후, 대리상과 점장들은 본사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고진영, 장하나, 제니퍼송이 선택한 LPGA골프웨어! 고진영 프로와 함께한 TV CF 공개!

LPGA골프웨어가 후원하는 선수들의 패션이 연일 화제다. LPGA투어 역사상 두 번째, 67년 만에 데뷔전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 프로는 블랙&화이트 패션부터 올 화이트 패션까지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냈다. 또 장하나 선수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with SBS골프'에서 잡은 우승컵은 물론 시상식에서 강렬한 빨간 스커트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제니퍼송 선수도 차분하고 깔끔한 경기와 패션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고진영 프로의 프로패셔널함과 LPGA골프웨어의 기능성과 패션성이 어우러진 CF가 공개돼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 시범사업 업체로

에프알제이 공식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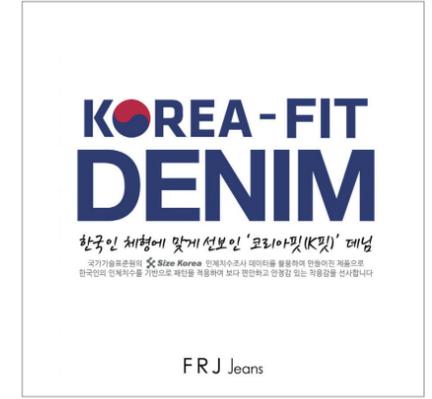
에프알제이가 한국인의 인체표준 정보 조사 사업인 '사이즈코리아'의 데이터와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내국인 체형에 최적화된 제품 출시와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양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에프알제이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에프알제이, 사이즈코리아 인증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K핏' 데님 출시!

올해 첫 신제품으로 한국인 평균 신장과 체형에 최적화된 'K핏' 데님을 출시한다. K핏은 '코리아(Korea)'와 '핏(Fit)'의 줄임말로, 사이즈코리아의 데이터를 활용해 제작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제품을 착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에프알제이는 고신축성 복합 소재를 활용한 '360 텐셀 데님' 등 360 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에프알제이, '코리아핏(K핏) 데님 페스티벌' 실시

지난 3월 에프알제이의 창비자 전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코리아핏(K핏) 데님 페스티벌'이 실시됐다. 올해 처음 선보인 이번 행사는 K핏 데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에 보답하고자 기획됐다. 전국 104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특히 K핏 데님, 360진 등 올 시즌 신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NBA 모델 청하-정진운-남주혁, LA 올스타전서 'NBA 패션' 뽐내

지난 2월 NBA 모델 세 명은 NBA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올스타전이 열린 LA를 방문했다. 그들은 올스타전 경기 관람부터 NBA 현역 및 레전드 선수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모델들은 NBA 인기 팀 로고를 활용한 스웨트셔츠, 점퍼 등 유니크한 스트리트 패션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올스타전 관람 현장 스케치 영상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커루, 양세종 데님 출시 기념 양세종 팬사인회 4월 28일 진행

버커루만의 빈티지함과 레트로 느낌이 담긴 S/S 시즌 신제품 '양세종-혜정 데님'이 출시됐다. '리얼데님', '스노우벅' 등 4가지 남성 라인으로 제작된 양세종 데님은 데님 본연의 멋을 살리기 위한 수작업 워싱 기법이 특징이다. 특히 스노우벅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워싱 디테일로, 유니크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성 라인 '혜정 데님'도 이번 시즌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를 기념하기 위한 양세종 팬사인회가 오는 4월 28일에 진행된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 7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지난 2005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총 20개 국가 7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도 한세에스24문화재단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한국과 각 국가 간의 교류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투자 논의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는 응웬 득 중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관심이 많고 향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김 대표의 말에 응웬 득 중 인민위원장은 "한세실업은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모범을 보이며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할 기업"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세실업은 현지 고용 증대를 통해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01년 베트남에 진출한 한세실업은 베트남 정부가 공로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 섬유업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놀 줄 아는(!) 당신, 여기 모여라 밴드 동호회 G24 2018년 신입 회원 모집

안녕하세요. 한세에스24홀딩스 계열사 가족 여러분! G24 밴드 3대 회장을 맡게 된 한세실업 박성열 부장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G24 밴드 동호회가 어느새 7살이 되었습니다. (짜짜짜!) G24는 매년 가을이 되면 정기 공연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사내 봉사 동호회에 기부하고 있지요. 올해도 가을 정기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기 공연을 관람하면서, 혹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셨던 분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연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라고 외치고 싶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고 싶은 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00명
-  **모집파트** : 전 파트(보컬,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래퍼, 바이올린, 탬버린, 트라이앵글, 짹짹이 등)
-  **지원조건** : 한세에스24홀딩스 산하 전 계열사 모든 직원 (인턴부터 대표님까지!)
 - 악기(목소리 포함)를 다룰 줄 아시는 분,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프로 음악인 배상운 프로님과 기존 회원님들이 개별 교육을 해드립니다.
 - ※ 정말 악기 처음 배워서 공연하신 분 있습니다. (Y사 S대리, D사 P대리, Y사 K대리 등)
 - 학창시절부터 최근까지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거나 쑥스러워서 시도하지 못했던 분들! G24로 연락 주시면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  **지원방법** : G24 동호회 회장 한세실업 박성열 부장 (spark@hansae.com), G24 동호회 총무 동아출판 김유현 대리 (Yuhyeon.kim@dong-a.com)에게 메일 발송
내용 - 이름/소속/지원 파트를 반드시 작성,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기재



모두가 함께하는 사보 구성

2018년 파릇파릇한 봄을 맞아 <HANSAE IN>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한세에스24홀딩스 전 계열사의 목소리를 한데 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 계열사 여러분! 2018년에도 <HANSAE IN>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ANSAE IN> 봄호를 보시고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 특별히 참여해보고 싶은 이벤트 코너 등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ellikim@hansae.com)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풍성한 사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 스포트라이트** 한세에스24홀딩스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다룹니다. 각 사의 특색을 나타내는 행사부터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행사까지, 어떤 것도 OK!
- 내가 패션왕!** 새롭게 도전한 이번 패션왕 코너, 만족하셨나요? 각 사에 숨어있는 '패션왕'을 귀뜸해주세요. 다음 여름호에는 그분이 바로 패션왕!
- 나도 한마디** 하나의 주제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익명 게시판!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장 먼저 내는 것은?', '백설공주와 라퐁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확성기** 전 계열사를 향한 나의 외침! 구인(3:3 미팅 하실 분, 읍치/배그 과외 해주실 분), 모집 공고, 분실신고, 물품 교환 등 멀리멀리 퍼져야 할 내용을 보내주세요.

한번 쓱 보는 것보다 세 번 정도는 읽어야 하는 우리 사보! <HANSAE IN>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매 분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ANSAE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YES24.COM

Go Beyond Education
동아출판

C&T
COLOR & TOUCH

한세드림(주)

FRJ Jeans

iSTYLE24 

HANSAE MK